

우석대 전홍철 교수,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 창립

우석대학교 전홍철(경영학부) 교수가 제4대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장에 취임했다고 전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신임 전홍철 학회장은 "중국의 돈황 연구원과 이란 국립예술아카데미, 일본 리치메이칸대학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해 돈황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의 38년 전통을 이어받아 학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실�크로드연구 학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홍철 교수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돈황 변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세계 최초로 '돈황변문집(敦煌變文集)'을 완역해 출판했다. 또한 최근 출간된 '돈황학대사전(敦煌學大事典)'에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로 인명이 수록됐다.

현재 우석대학교 공자유아카데미 원장과 실�크로드영상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순창서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기부 이어져

양재훈 전주농협 경영지원본부 팀장 등 3인 1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지난달 31일 양재훈 전주농협 경영지원본부 팀장 김종탁 순창상가정식품 이사 박민준 (썬가온에프에스 대표)가 각각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해 총 1,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양재훈 팀장은 순창을 출신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며 전주농협 경영지원본부에서 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김종탁 이사 또한 순창을 출신으로 광주에 거주하며 순창 전통장류 제조기업인 순창상가정식품 이사로 재직중이다.

또한 박민준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도시락, 김밥 등 즉석식품을 제조하는 (썬)가온에프에스를 운영하며 순창군과 연고가 없음에도 순창 장류를 이용한 편의점 삼각 김밥 등 신메뉴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순창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3인은 모두 연령이 40대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기부활동으로 공헌하며 상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양재훈 팀장은 "고향 순창군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종탁 이사 또한 "순창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순창군은 지난 31일 양재훈 전주농협 경영지원본부 팀장, 김종탁 순창상가정식품 이사, 박민준 (썬가온에프에스 대표)가 각각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해 총 1,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탁 이사, 박민준 대표, 최영일 군수, 양재훈 팀장)

이어 박민준 대표는 "순창이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서로 다른 지역과 다른 일에 종사하시지만 순창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전해주시는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전북도, 모델 겸 방송인 정혁 홍보대사 위촉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앞두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모델 겸 방송인 정혁(32)을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새롭게 위촉된 홍보대사는 향후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라북도 도정 홍보를 위해 활동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혁은 군산 출신으로 2015년 DDP에서 열린 S/S 서울패션위크 블라인드니스에서 정식으로 데뷔했으며, KBS2 삼남매는 남자들, '쿠광플레이어' SNL코리아, '체널 익스큐시브:일단 잡취미'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새롭게 위촉된 홍보대사는 전라북도종합홍보 영상 제작과 사진 촬영 등을 시작으로 전라북도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 제작을 통해 전라북도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 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수 방송을 통해 보여줬던듯 항상 밝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에 적격이라는 평가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 출신으로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홍보대사께서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온·오프라인 등 도정 홍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 기름보일러 기탁

김제중앙MJF라이온스 클럽(회장 이용식)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47가정에 지원해 달라며 300만 원 상당의 기름보일러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기부받은 보일러는 김제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47가정을 직접 방문해 설치되며 김제기류라이온보일러 대표(이재용)와 함께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된 가정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이용식 회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걱정된다며, 겨울이 다가오기 전 노후되고 고장 이 많은 기름보일러를 교체해 드리게 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중앙MJF라이온스 클럽과 김제기류라이온보일러가 함께 훈훈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고 홀로 겨울을 보내야 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줘 감사하다"며 "김제시에서도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제중앙MJF라이온스 클럽은 2016년부터 독거노인 보일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청소년 응원프로젝트 장학금 연 1천만원과 다문화가정 학습품 지원, 독거노인 음식 봉사 등 다수 후원 및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에스에이치티, 남원시에 사랑의 마스크 전달

남원시는 (주)에스에이치티(대표 김수형)가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KF94 대형마스크 1만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에스에이치티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반도체 장비 및 2차 전지사이클 및 부품 가공업체로 올해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관내 요양병원 및 장애인 시설 등에 마스크 9만장을 기부한 바 있다.

김수형 대표는 "코로나19가 한풀 꺾이긴 했으나, 환절기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스크를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김수형 대표의 마음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마스크가 취약계층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이진석 팀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 이진석 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2023 LINC 3.0 어워드(Award)에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진석 팀장은 2008년부터 20년 동안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북도의 다양한 산학 협력사업을 수주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펼쳐 왔고,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교육부의 산학협력정보담당관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3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과 창출, 그리고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구축과 산학협력프로그램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진석 팀장은 "지난 20년 동안 견고한 기반을 다져온 산학협력선도대학 체계에서 이제는 새로운 지·산·학 및 글로벌 산학협력모델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대표 관광기념품 6점 추가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달 30일 2023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추가 상품 선정 기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를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매년 25점의 상품을 선정해 총 100점의 상품을 구성했다.

31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100선에서 해제되는 상품이 발생함에 따른 추가 상품을 선정하고자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모를 진행, 10월 16~24일까지 1차 실물 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을 대표하는 기념품 6점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상품으로는 △전주 나전 마그넷(키사, 이보란), △임실삼초(재갈재갈창작공방, 황보람), △한옥이야기-기외새 장신구(도도갈라리공방, 모선희), △한옥 스마트폰 거치대(월령공방, 두기환), △전라북도 문화유산 배지(더



바림, 최일), △경기전 에스프레소 잔(위시아트랩, 한송지) 등이다. /정은성 기자

진안 부귀초, 학교 홍보 위해 세병호서 버스킹 나서

진안 부귀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 홍보를 위해 전주에코시티 세병호서에서 버스킹을 준비중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버스킹에서는 이 학교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합창대와 교직원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부귀초는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교생이 30명으로 작은 학교가 됐지만, 소인수 학교의 장점을 살려 개별화 교육, 체험학습 등을 활성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다인수가 참여해야 하는 체육활동이나 원만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에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학교 홍보에 나선 것.

학교 홍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에코시티 학교에 다니는 28명의 초등학생을 5일 동안 초대해 부귀초 학생과 함께 생활을 했고, 10월 25일에는 전주에 거주하는 학



부모와 학생을 초대해 학교 방문의 날을 운영하기도 했다.

정성우 교장은 "이번 버스킹 행사는 전북교육청이 어울림 학교를 광역으로 확대하고 통학버스까지 제공해준 파격적인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전대학, 전공현장실무 프로그램 운영

전주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진로취업지원센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재학생 전공체험 프로그램인 전공현장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현장실무를 통해 진로 설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타 학과 전공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아이부스 및 전주전대학 본교 캠퍼스 건물 내에서 진행 총 27개 학과에서 운영하는 전공별 체험 부스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주고용센터와 협업해 운영한 커피 트럭을 통해 재학생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베스트인, 휴먼제이앤씨, 국제커리어, 여성안력개발센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상담과 학생은 "타 학과 체험을 통해 흥미를 파악하고, 역량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앞으로도 NCS 기반 전공직무역량과 직업 기초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구체화해 취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제2기 익산박물관대학 운영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윤림)은 제2기 익산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총 8번의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연구자와 전문가가 세계유산에 속하는 봉도사 부석사 불경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와 함께 금사사, 실상사, 선운사 등 전북의 대표적 사찰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대면강의 5회 이상 참가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 및 기념품이 제공된다.

수강신청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isan.museum.go.kr) 또는 전화(063-830-0942~4)를 통해 하면 된다. 최대 80명까지 접수 가능하다.

단, 유튜브는 별도 신청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hi-CES 사업단, K-POP GX Contest '금상'

우석대학교 hi-CES 교육사업단 소속 학생들이 제24회 운동가대회 및 2023 운동가 국제 학술대회에서 K-POP GX Contest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최근 충남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석대학교 Human Muscle System 동아리(회장 김승진 외 7명)는 K-POP과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신창훈(스포츠지도학과) 지도교수는 "에선 통과 6개 대학의 경쟁 속에서 금상을 수상한 저력은 6개월간 힘든 훈련과 연습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북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임상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석대학교는 스포츠지도학과와 태권도학과를 중심으로 hi-CES 교육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굿피플 인터내셔널, 정읍시에 희망박스 50상자 기탁

(사)굿피플 인터내셔널(이하 굿피플)은 지난 31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희망박스(식료품주머니) 50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이학수 시장과 노브랜드 구분기 상무와 임원진, 굿피플 김현수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희망박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기초푸드뱅크에 전해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굿피플은 2018년부터 정읍시에 총 2억 6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희망박스 2600상자를 기탁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속적인 기부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